

## 4백여년을 뛰어넘어 막그릇의 신비에 사로잡힌 작가

《조선 막사발 천년의 비밀》 펴낸 정동주씨

16세기 중반, 경상도 남쪽 해안지방에서 만들어진 막사발 꿀을 한 수수께끼의 그릇 수십점. 일본 차인(茶人)들은 그것을 '이도차완(井戸茶碗)'이라 부르며 일본 제일급 보물로 떠받들었다. 청자도 백자도 아닌 하층민의 생활잡기로 추정되는 투박한 막사발을 왜 일본 차인들은 '대명물(大名物)'로 추앙하는 것일까? 막사발은 16세기 중반 조선 땅에서 과연 무엇으로 쓰였던 그릇일까?

시인이자 소설가인 정동주씨(60)가 펴낸 《조선 막사발 천년의 비밀》은 바로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 수수께끼를 기행문 형식으로 풀고 있다. 하지만 예사 기행문은 아니다. 그는 방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도차완이 막사발이 아니라 불교미술품인 '발우'라는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치밀하게 실증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수수께끼 같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무시로 일본을 드나들었다. 이도차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저도 봤다. 또 현지의 연구자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개인 소장자, 미술관, 박물관 등을 돌아다니며 30여년간 꾸준히 자료를 모았다. 그는 특히 일본의 국보 기자에몬이도와의 만남을 "잊을 수 없는 기쁨이자 슬픔이었다"고 회상한다. 우리는 낳았지만, 일본인들이 길러냈다는 뼈아픈 자괴감 때문이었다.

“이도차완이 막그릇이 아니라 발우였을 것이라는 생각은 불교의 사대울장 가운데 《사분율》과 《마하승기율》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흙발우에 내재된 종교적 깨달음과도 무관하지 않구요. 특히 이도차완의 비밀 가운데 가장 신비한 비파색은 석가모니 '최후의 깨달음'을 상징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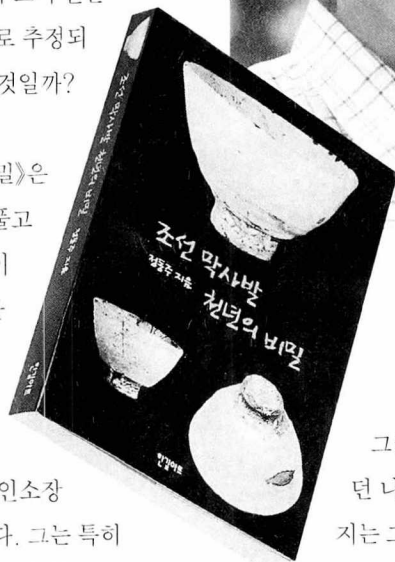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국내에는 막사발에 대한 연구는 문이나 책이 단 한권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쪽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대로 된 학술 하나 세우지 못한 국내 학자들은 일본학설만 맹종하고, 일부 양식없는 사기장들은 엇비슷하게 모양만 갖춰 한몫 잡아볼까 하는 천박한 상업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막사발이란 이름이 일본의 도굴꾼들에 의해 붙여진 만큼 본래의 이름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막사발 대신 '막그릇'이라 부른다. 하지만 사실 이 말도 그 가치의 무게를 담아내기엔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도차완의 신비는 흙에 있습니다. 다른 흙을 섞지 않은, 흔히 단미(單味)라고도 하는 특별한 흙이죠. 어느 한곳의 몸흙(胎土), 몸흙과 이웃한 곳의 흙웃(釉藥),



정동주씨



한길아트/85면형/176면/15,000원

그리고 그 흙웃 속에 뿌리내리고 살던 나무를 태워 얻은 재료로만 만들어지는 그릇이죠.”

그는 이 요묘한 흙을 찾기 위해 경남 일대를 몇년간 샅샅이 훑고 다녔다. 비슷한 흙을 찾았다고 생각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릇을 만들어보고 형태와 색깔을 시험했다. 이런 혼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얼마 전 전주에서 20km쯤 떨어진 곳에서 흙을 발견하고, 사기장 길성·길기정 부녀의 도움으로 이도차완의 재현에 성공했다. 이 책을 낸 것도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이론의 토대를 만들고, 기술적인 결합으로 실증적인 복원에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사기공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자신도 도예전문가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도차완이 발우였을 것이라는 생각은 불교의 사대울장 가운데 《사분율》과 《마하승기율》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흙발우에 내재된 종교적 깨달음과도 무관하지 않구요. 특히 이도차완의 비밀 가운데 가장 신비한 비파색은 석가모니 '최후의 깨달음'을 상징하죠.”

그는 현재 '한국문화론'이라는 장르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작업은 역사와 인물,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잃어버린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한다. 느티나무의 미학을 다룬 예정인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은 지난해 펴낸 《소나무》에 이어 이런 작업의 결과물이다. —박순근기자

## 기업 CEO들에게 처방하는 '영혼' 이라는 백신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 퍼낸 안철수씨

아직 컴퓨터 바이러스가 낯설게 받아들여지던 1980년대, 바이러스 치료백신을 들고 나타났던 안철수씨(40,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가 이번에는 '기업에 대한 예방 백신'을 내놨다. 그가 펴낸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는, CEO로서 그가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 평등함과 공정함의 차이,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그만의 변하지 않는 원칙들이 밝혀져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삶도 사업도 긴 승부라고 말한다. 본질적으로 성공은 금방 보답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긴 승부의 한 전환점에서 그가 이 책을 낸 것은 그동안의 경험과 공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지식들을 정리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마침 그의 회사도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다.

그는 이 책을 내기 위해 6천매 가량의 원고를 정리했다. 청탁이 들어와서 따로 시간을 내 원고를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틈 날 때마다 메모를 해둔다. 그는 항상 큰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많이 궁금해한다. 실은 그 안에는 거의 그가 쓴 메모용지들로 가득하다.

그가 이 책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영혼이 있는 기업이다. 그는 CEO들을

"영혼이 있는 기업이란, 구성원들이 믿고 따르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훗날 CEO가 떠나고 또 사업분야가 달라져도 그 회사의 가족들이 이 가치를 진심으로 믿고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기업 말이죠."

위해 '영혼' 이라는 백신을 세상에 내놓은 셈이다.

"영혼이 있는 기업이란, 구성원들이 믿고 따르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훗날 CEO가 떠나고 또 사업분야가 달라져도 그 회사의 가족들이 이 가치를 진심으로 믿고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기업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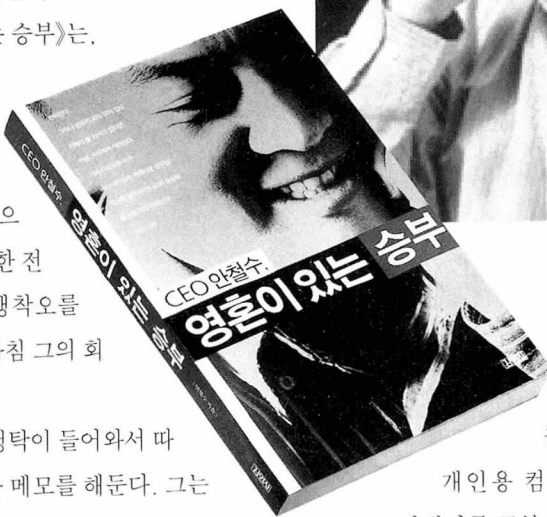
맥아피(네트워크 어소시에이트)가 1천만 달러에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해왔을 때 이를 거절하게 만든 것도 그의 이런 생각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함께 고생한 직원들을 버릴 수 없었고, 국내에서 몇 안되는 대표 소프트웨어 업체인 '안철수연구소'를 외국 기업에 넘길 수 없다는 신념도 한몫했다.

안씨가 컴퓨터를 처음 접하고 매료된 때는 1982년 의대 본과 1학년 시절이었다. 함께 하숙하던 친구가 방으로 들고온 '애플+' 컴퓨터에 매료돼 1년 후 컴퓨터



안철수씨

김영사/A5신/290면/9900원



를 구입했다. 1986년 IBM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도스와 IBM 기계어를 공부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컴퓨터에 매달렸다. IBM 기계어 공부가 끝나가던 1988년 초, 당시 브레인 바이러스가 나돌기 시작했고 이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처음 만들었다. 이것이 그가 '컴퓨터 의사'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진짜 의사'를 그만두는 일에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사를 그만둘 때 그는 의대 학과장을 지내고 있었다. 젊은 나이에 비해 무척 성공한 셈이었다.

"과거의 성공은 미래에 대한 짐이고 장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택한 거죠. 제가 만약 두개의 길을 가고자 했다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제1인자가 되려는 노력은 더더욱 할 수 없었겠죠."

서초동 뒷골목 허름한 사무실에서 직원 세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180여명의 직원과 일곱개의 관계사를 두고 코스닥에 등록까지 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CEO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한다. 다만, CEO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점은 확실히 깨닫고 있다.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둘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CEO로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다.

이런 그가 다음엔 또 어떤 백신을 들고 나타날지 자못 궁금하다. —김장근 기자

#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학하라”

《니체, 천 개의 눈 천 개의 길》 펴낸 고병권씨

고병권씨(31)는 지난 1998년 '니체 강사' 로 <수유연구실 + 연구공간 '너머' >에 초빙됐다. 이곳에 눌러앉았다. 그가 펴낸 《니체, 천 개의 눈 천 개의 길》은 지금까지 이곳에서 강의한 것을 고치고 보태서 내놓은 책이다.

그는 화학과 출신이다. "사물이 변한다는 게, 그걸 공부한다는 게 좋아서" 거기 들어갔다. 하지만 곧 "속았다"는 걸 깨닫고 대학원은 사회학으로 진학했다. 거기서 니체를 만났다.

"대학원에서는 원전 강독하잖아요. 헤겔 《법철학》이니 하는 것들에 지긋지긋해졌을 때였어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거 끝나면 쉬운 책 좀 읽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니체의 《도덕의 계보》였습니다."

헤겔에 비하면 니체가 쉬울 것도 같다. 특히 니체 문장은 운율이 있어서 술술 잘 읽힌다고 그는 말한다. 스타일도 다양하다. 아포리즘, 희곡, 소설 비슷한 글쓰기도 시도한 인물이 니체다. 사회학도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던 그는 그만 니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버렸다.

“철학한다는 것은 ‘아모르 파티’, 즉 사랑하는 것입니다. 니체든 무엇이든 진정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철저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것을 꼬집고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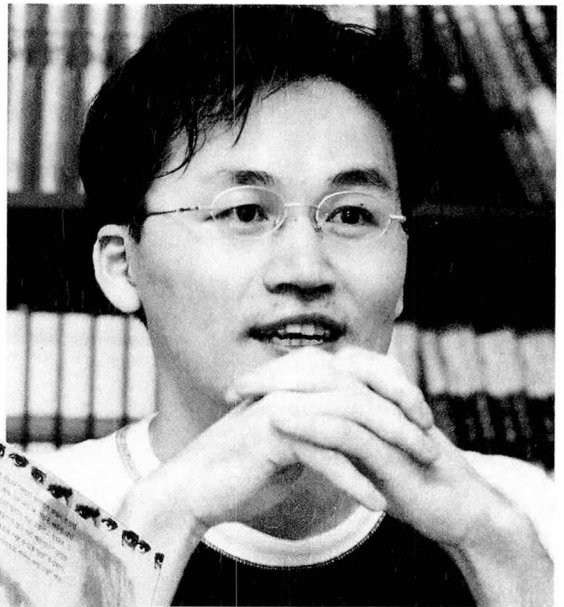
“남들은 고등학교 때 읽는다는 니체를 뒤늦게 만나 그만 그의 뒷에 걸렸죠.”

석사논문도 니체로 썼다. 교수들은 니체가 사회학과 무슨 상관이나고 체통을 걸었지만, 그는 “찾아보면 설마 사회학적 함의가 없겠냐”고 응수했다. 결국 “사회학적 지평을 넓힌(?) 것”으로 인정받고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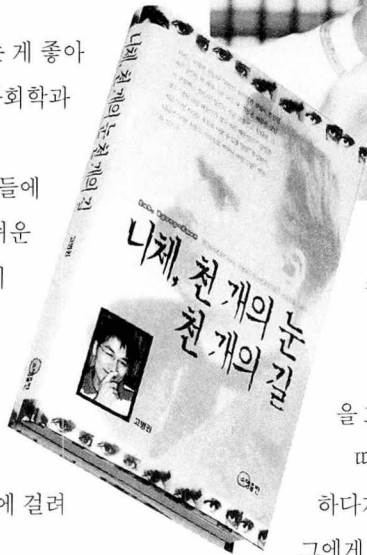
“이번에 낸 책은 ‘온몸으로 니체 읽기’입니다. 해석했다기보다는 니체와 섞여서 사이보그가 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유난히 원전 인용이 많다는 것이 그 하나다. 온통 따옴표다. 고씨는 “따옴표를 지워서 읽어라. 그러면 그게 내 이야기다”고 설명해준다. 이 말은 니체의 말이 곧 그의 말임을, 결코 표절이나 어설픈 해설이 아님을 뜻한다. 두번째는 니체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제기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그는 ‘사랑’이란 말로 답한다.

“철학한다는 것은 ‘아모르 파티’, 즉 사랑하는 것입니다. 니체든 무엇이든 진정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철저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것



고병권씨



소명출판/A5/320면/13,000원

을 꼬집고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비판은 없다.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다가 싫어질 수는 있어도... 그런데 니체는 그에게 끝없는 지적 에로스의 대상이다. 제목에 나오듯 ‘천개의 니체’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

니체는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 “느끼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말이며,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는 소용없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라기보다는 단지 ‘철학하는’ 사람으로만 알아달라고 주문한다.

고씨는 ‘천 개의 눈을 가진 사상가’인 니체의 주요한 철학적 명제들을 이렇듯 종합무진하며 읽어낸다. 그러면서도 매우 체계적이다. 니체의 눈에 비친 당대의 철학, 그리스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 사이의 줄타기에서 찾는 니체 사상의 연원, 19세기에 생겨난 투시주의와 광학의 지 그리고 근대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 권력의지와 영원 회귀에 대한 면밀한 해설 등 한 사상가를 알기 위한 통로는 모두 만들어졌다.

“처음부터 읽을 필요는 없어요. 니체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부터 읽다가 자신에게 맞으면 계속 읽어나가는 게 좋죠. 댄스를 추듯 무질서한 사유의 리듬을 즐긴 니체처럼 니체를 읽을 때는 그것을 직접 실험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요.” —강성민기자